

# 어떤 우울한 인연

장철봉 재미한인수의사

그녀는 한 때 떠돌이 집시생활을 한 향가리 출신이었다.

그녀의 집은 호수를 내려다 보는 한적한 산 중턱에 있었다. 주위엔 참나무가 둘러져 있고, 북가주의 습한 겨울철이면 참나무에 기생하는 회색 곰팡이는 끈처럼 길게 자라 흔들흔들 늘어진다.

질은 안개가 골짜기를 감싸면 길쭉한 끈은 희멀건 귀신이 되어 나무 사이로 흐느적 거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남편이 별장계 상기된 표정으로 나의 병원에 들어서면서 빗자루를 찾았다.

들고온 포도주병이 병원문을 열다 바닥에 떨어져, 깨진 유리조각을 치워야 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마치 점괘보는 집시처럼 병이 깨진 사소한 사건을 두고 오래오래 상념에 잠겼다.

언뜻 낱짜를 쫓아보니 그 분이 세상 떠난 날이 아

마 포도주병이 깨진 그 날이나 그 주일 것 같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일년에 한두차례 치료차 그녀를 방문하게 되었다.

내가 그녀 집에 갈 무렵은 포도주 발효가 적당이 끝나 감칠 맛을 낼 때였다.

그녀는 여러종류의 포도주를 담아 두었다가 나의 차에 실어 주곤 했다.

대부분 집시가 그러려니 그녀도 활동적이며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곤 했다.

집 거실에는 그녀가 손수 만든 어린이 인형들이 마치 중국의 천마총처럼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다.

어떤 인형하나를 집어 들고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침공때 죽은 이웃 친구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만든 인형이라고 사연을 설명해 주었다.

인형 전부가 그런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바람이 몹시 불던 초겨울 어느날 저녁, 나는 병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 집을 들렀다.

동물들에게 예방접종을 벌써 끝냈지만 외롭게 있는 그녀를 모르는 채 일어서지 못해 차 한잔을 앞에 두고 한참이나 그녀의 집시생활을 또 들어야 했다.

밖에 나오니 찬바람이 몹시 불었다. 아까 올 때 요란스럽게 짖어대던 개들도, 현관 앞에 어울려 돌돌 만 자세로 자던 고양이들도 보이지 않고 바람소리만 사납게 들릴 뿐 사방이 캄캄했다.

차에 올라 혼자가 되니 그녀의 지난 세월 이야기 때문인지 날씨 때문인지 나는 이국 타향생활의 무서움과 외로움이 확 밀려오면서 웬지 모를 서글픔까지 느껴졌다.

을씨년스러운 기분을 지워보자고 라디오를 크게 틀었다.

그리고 천천히 후진을 했는데 바퀴가 장애물에 끼었는지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앞으로 조금 전진해서 가속으로 후진했다. 쿵 장애물을 넘었다.

방향을 틀어 음악소리에 콧노래 맞춰 나의 집으로 향했다.

얼마쯤가다 뭔가 스쳐 지나치는 느낌이 있어 차를 돌려 그녀의 집으로 질주했다.

아 그랬구나, 그 장애물이 동물이었구나. 내가

나의 차로 내가 조금전 예방접종한 검은 개를 쳤다. 바람을 피해 따뜻한 엔진 밑에 움츠려 있다 변을 당했다.

병원으로 차에 치인 응급동물환자가 오면 인공호흡을 한다, 응급주사다 하면서 부산하게 움직이던 나는 어찌된 셈인지 멍하게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차소리가 다시 나고 전조등 빛이 어둠속을 헤쳐 집안으로 들어서니 그녀는 밖으로 나왔다.

나는 그제사 병원에 데리고 가 응급처치를 하겠다고 했다.

“치료하지 말고 안락사를 하세요”. 응급조치를 취하겠다는 나의 제안에 “고통없이 죽는 것이 생명을 조금 연장하는 것 보다 낫다”면서 거듭 안락사를 요구했다.

일년이 지난 후 나는 그녀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그녀의 생활은 여전 했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몸 속에 필요 없는 것이 자란다”고 했다.

의사들은 수술과 항암치료를 권장하였지만 진통제만 복용한다고 했다.

나는 의사 권유데로 치료를 받아보시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속에만 맴돌 뿐, 머뭇머뭇하는 나에게 포도주를 안겨주며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나직히 말했다. 

※ 미주중앙일보 2007년 3월 21일자 신문에 '애완견 안락사 시킨 여인'으로 게재된 글입니다